

[붙임 5]

< 베트남 >

- 국 명 :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 면 적 : 약 331,210 km² (한반도의 약 1.5배),
- 기 후 : 아열대(북부), 열대몬순(남부)
- 수 도 : 하노이(Hà Nội)
- 인 구 : 약 96,160,163 명(2017.07)
- 민 족 : 베트남(85.7%), 태국(1.8%), 몽골(1.5%), 외국인 및 기타(11%)
- 언 어 : 베트남어, 영어, 크메르어, 기타
- 환 율 : Vietnamese Dong(VND)22,829 = USD \$1(2018년 4월 4일 기준)
- GDP : USD \$2,159억(세계 44위)

○ 베트남 가전제품 시장

- 독일 리서치 기업인 GFK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베트남의 가전 시장 매년 두 자릿수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음
- 베트남 소비자들은 가전제품을 포함한 전자제품 구매를 위해 2017년 4분기 약 56억 달러를 지출함. 전년 동기 대비 약 5.5% 증가함
- 베트남 현지 가전산업이 미약한 상황이어서 대부분을 히타치, 샤프, 도시바, 삼성, LG, 필립스, 다이킨, 쿠쿠 등 해외 유명 브랜드가 사실상 점유하고 있고, 가처분소득 증가 및 고소득층 소비자층의 확대로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핵심 가전제품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음
- Information Technology(IT), photography(PHO) office equipment and consumables(OE)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의 성장률을 보임

<베트남 주요 전자제품 군별 소비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7. Q2	2017. Q3	2017. Q4	전년동기대비 성장률
consumer electronics (CE)	7,522	8,982	10,726	13.4
telecommunications (TC)	23,910	23,882	26,453	0.5
small domestic appliances (SDA),	1,601	1,763	2,389	12.5
major domestic appliances (MDA).	7,792	8,248	9,378	24.3
Information Technology (IT),	5,653	6,795	6,308	-0.2
photography (PHO)	726	646	667	-16.7
office equipment and consumables (OE)	299	293	280	-59.4
합계	47,503	50,610	56,201	5.5

주: cpnsuner electronic : DVD, music player / (TC)telecommunications : 전화기, 휴대폰 / SDA(Small Domestic Appliances): 전기포트, 진공청소기, 전기밥솥 / MDA(Major Domestic Appliances: 전자레인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 (IT)Information Technology : PC, 노트북, 태블릿 / (OE)office equipment and consumables : 프린터, 복사기, 팩스

자료원: GfK TEMAX Vietnam report Q1/2018(적용환율 1달러=2만2831동)

o 베트남 스마트폰 시장

- 2016년 베트남 핸드폰 판매량은 전년보다 약 150만 대(3.9%) 증가한 3950만 5600여 대로 집계됨. 그 중 스마트폰 판매량은 2171만여 대로, 당해 핸드폰 판매량의 약 55%를 차지함
- 피쳐폰의 마이너스 성장에도 불구하고 피쳐폰 시장 입지는 굳건한데, 피쳐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꾸는 경우 기존 피쳐폰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스마트폰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2개 이상의 핸드폰을 소지할 경우 피쳐폰과 스마트폰을 혼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 2016년 스마트폰 시장은 전년보다 약 1.3배 증가한 판매고를 기록했으며, 이는 저가 스마트폰 시장 활성화가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2012-2016년 베트남 스마트폰 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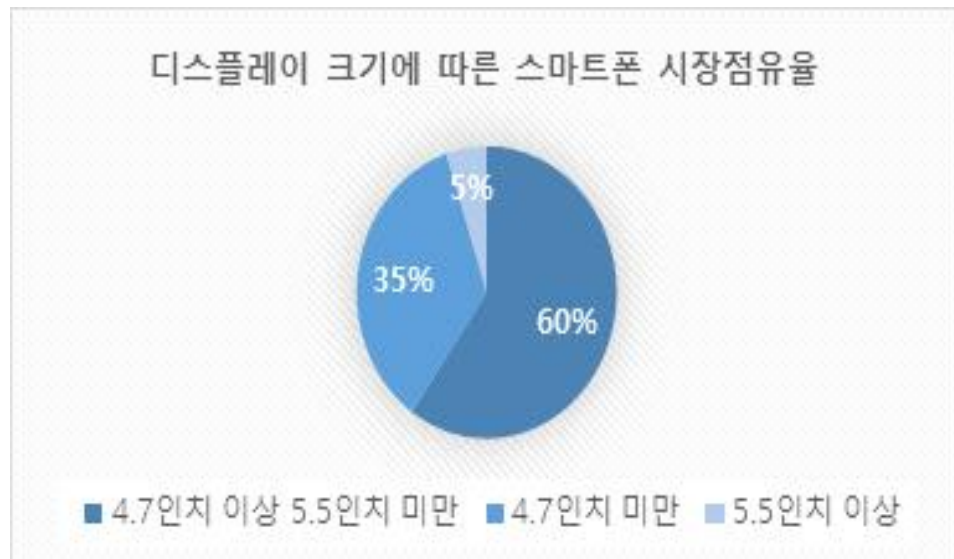
구분	단위	2012	2013	2014	2015	2016
총 판매량	천 대	2,208.9	3,494.9	7,222.5	15,044.6	21,701.4
총 매출	백만 달러	830.00	1,305.00	1,838.00	2,688.00	3,429.89
평균 판매가	달러	375.8	373.4	254.5	178.7	158.0

주: 평균 판매가는 총매출을 총판매량으로 나눈 값

자료원: BMI

- 디스플레이 크기에 따른 베트남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을 보면, 4.7인치~ 5.5인치 크기의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이 2016년 기준 약 60%를 차지함. 4.7인치 미만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35.2%로 높긴 하지만 5.5인치 이상 비율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 삼성, LG, Oppo 등의 핸드폰 제조사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대의 큰 화면 스마트폰 공급을 늘려나가고 있는 것도 해당 품목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임

<디스플레이 크기에 따른 베트남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자료원 : Euromonitor International

- 15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한 베트남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2013년 8% 에서 2016년 48%로 가파르게 상승했으나, 유사한 소득수준을 가진 타 국가의 스마트폰 보급률과 비교해서는 한참 뒤쳐져 있는 상황임. 이에 베트남 스마트폰 시장은 높은 성장 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이동통신기술의 세대 전환과 주요 이동통신사업자들 간 요금 인하 경쟁이 현지 스마트폰 수요 증가의 기폭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따라서 현 지 핸드폰 시장 경쟁도 한층 가열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지 소비 자들의 소득수준과 현재까지의 시장동향을 감안했을 때 저가 스마트폰 시장 경쟁이 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

<향후 5년간 베트남 모바일 시장 규모 전망>

(단위: US\$ 백만, 천 대, %)

구분		2017f	2018f	2019f	2020f	2021f
판매량	피쳐 폰	17,233.7 (-3.5)	16,060.0 (-6.8)	14,117.2 (-12.1)	13,511.3 (-4.3)	12,730.5 (-5.8)
	스마트 폰	22,757.4 (56.9)	24,291.1 (60.2)	25,709.3 (64.6)	26,554.2 (66.3)	27,575.3 (68.4)
	전 체	39,991.1 (1.1)	40,351.1 (0.9)	39,826.5 (-1.3)	40,065.5 (0.6)	40,305.9 (0.6)
매출액	피쳐 폰	284.7 (-2.6)	278.6 (-2.1)	241.0 (-13.5)	227.1 (-5.8)	215.4 (-5.2)
	스마트 폰	3,646.0 (6.3)	3,769.9 (3.4)	3,973.5 (5.4)	4,160.3 (4.7)	4,347.5 (4.5)
	전 체	3,930.6 (5.6)	4,048.6 (3.0)	4,214.5 (4.1)	4,387.3 (4.1)	4,562.8 (4.0)

주: ()안은 전년 대비 성장률 전망치

자료원: BMI

○ 베트남 스마트홈/시티 시장

- (하노이) 하노이는 2030년까지 스마트시티 건설 계획 중이며, 이를 위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IT관련 예산을 5,520만 달러에서 1,262억 달러로 늘림
- (호치민) 2017년 ‘호치민시 2017-2020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이 확정되어 스마트시티 개발이 구체화 되었으며, 개방형 교통 데이터베이스는 출퇴근 시 교통 혼잡을 피할 수 있도록 활용될 것이며 스마트 주차 시스템은 보다 용이한 주차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됨
- 최근 일본과 베트남 투자가들의 컨소시엄이 373억 달러에 달하는 스마트 타운 사업을 발표한 바 있음. 하노이 북부에 위치한 이 사업은 스미토모, 미쯔비시중공업, 도쿄 메트로, 니켈 세케이(일본) 및 BRG(베트남) 이 주도하고 있으며 2018년 10월에 개발 시작 예정
- 베트남은 대형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수요가 높은 곳으로 주요 도시 내 스마트타운(town) 개발 프로젝트도 많이 생겨나고 있음. 베트남은 아직 스마트시티 개발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 및 민간 기업들은 베트남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경험을 공유하고 서비스를 개발 노력이 요구됨. 특히 대규모 도시 개발 및 IT 서비스 구축에 경험이 많은 우리 기업의 참여가 기대됨

○ 베트남 보안장비 시장

- 베트남 정보보호 시장은 공공 부문 IT 인프라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가운데 전자정부 프로그램용 보안 시스템에 대한 수요도 커질 것으로 기대됨
- 민간 역시 전자상거래, 온라인 banking, SNS 및 각종 인터넷 기기 보급의 확대로 IT 보안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물리보

안 분야에서도 주거/빌딩 경비 및 신변 보호 모니터링, 안전요원 모니터링 등에 대한 수요가 존재

- 6Wresearch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아직까지는 저가의 아날로그 방식 영상감시 시스템 비중이 가장 높지만, IP 영상감시 제품이 매출액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엔드유저 사이에서 아날로그 HD 카메라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하이엔드급 아날로그 카메라 시장이 더욱 성장할 전망
- 보안장비 중 CCTV는 베트남 내에 생산 기반이 없어 해외 벤더들에 대한 의존도가 특히 높은 분야로 중국/대만의 업체들이 높은 시장 장악력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Vantech, VDTECH, Questek, Seavision, Escort 등 현지 업체들도 점차 부상하고 있음
- 2016~2022년 사이 IP 영상감시 시스템은 정부 및 교통, 은행과 금융 산업을 중심으로 도입될 전망이며, 향후 6년간 성장의 주요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됨

<보안장비군 별 유망 제품>

보안장비군	주요 유망 제품
출입통제 장비	도난방지,침입방지 모니터링 시스템, 출입제어 및 감시 시스템
탐지 장비	수하물/신체 스캐너, 금속탐지기
화재 장비	화재경보 시스템, 제어패널, 소화분무기, CO2 및 불활성 압축가스 시스템 및 가스 탐지 시스템

○ 베트남 전자 상거래 시장

-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은 연간 35%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US\$ 100억 달러까지 성장이 기대됨. 2020년 1인당 구매액이 US\$ 350달러까지 증가가 예상됨
- 베트남 정부는 ‘2016~2020년 전자상거래 개발 마스터플랜’을

통해 전자상거래 물류, 네트워크 인프라 및 결제시스템 구축 계획을 밝힘. 하지만 아직 시장 도입기로 전자상거래 시장의 규모는 전체 소매 유통시장의 2.8%에 불과함

-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매년 두 자리 수를 기록하며 급속히 확대되고 있고, 특히 10~30대의 젊은 세대가 주축이 된 인터넷 사용자 인구의 증가로 시장의 전망이 잠재적인 것은 분명함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베트남 소비자의 주요 구매물품 및 사이트>

	구매물품	사이트
1	전자제품	LAZADA, VuiVui
2	의류, 화장품 등	LAZADA, TiKi, Sendo, ZALORA
3	가정용품	LAZADA, TiKi
4	책	TiKi
5	이벤트 티켓	HOTDEAL, MUACHUNG
6	음식	Foody, adayrol
7	여가	ivivu

자료원: VECITA, Frost & Sullivan,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 2014년 기준 LAZADA 베트남(lazada.vn)의 전자상거래 시장점유율은 36%이고, 2016년 10월 한달 방문 횟수는 2,571만 건임. 알리바바가 LAZADA를 인수함에 따라 취급 상품들의 범위가 더욱 넓어져 시장점유율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베트남 주요 전자상거래 서비스 기업>

연번	기업명	웹사이트명
1	Recess Co., Ltd	http://www.lazada.vn
2	Peacetech Solutions JSC	https://www.chodientu.vn
3	Hotdeal Co., Ltd	https://www.hotdeal.vn
4	Vietnam Price JSC	http://www.vatgia.com
5	VCCORP JSC	http://enbac.com

6	VCCORP JSC	http://rongbay.com
7	Sen Do Technology JSC	https://www.sendo.vn
8	Cung Mua Co., Ltd	http://www.cungmua.com
9	VinCommerce Co., Ltd	https://www.adayroi.com

주: 순서는 기업규모 및 매출액과 무관함

자료원: 베트남 전자상거래 및 정보통신국(VECITA) 보고서

o 베트남 헬스케어 시장

- 경제 성장과 함께 현지 보건의료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BMI에 따르면 최근5년간(2011~2016년) 베트남 내 입원 환자 및 외래 환자 수, 외과 수술 건수 모두 연평균 2.3%의 속도로 증가했음
- 보건의료 수요 증가를 토대로 의료기기 시장도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이고, 2011~2015년 베트남 의료기기 시장은 연평균 8.4%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함. 아시아-태평양 역내 국가 평균(6.1%) 대비 빠른 시장 성장세를 시현함

<2016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별 의료기기 시장 매출 현황>

순위	국가명	총매출 (백만 달러)	1인당 매출(달러)	비중(%)	2011~2015년 CAGR(%)
1	일본	25,226.37	199.7	37.2	-1.6
2	중국	19,611.41	14.0	28.9	10.6
3	한국	5,356.50	106.1	7.9	3.6
4	호주	4,765.32	196.0	7.0	0.9
5	인도	3,784.29	2.9	5.6	6.2
6	대만	1,907.14	81.5	2.8	3.5
7	태국	1,266.20	18.4	1.9	6.1
8	말레이시아	1,233.10	40.1	1.8	2.5
9	베트남	981.37	10.4	1.4	8.4
10	인도네시아	850.28	3.3	1.3	9.9
	아시아-태평양	67,817.16	17.4	100.0	6.1

주: CAGR: 연평균 성장률

자료원: BMI

- 2016년 추정치 기준, 품목별로는 ‘영상진단기기’가 전체 시장 매출의 30.3%에 상당하는 약 2억 9730만 달러의 판매액을 기록, 베트남 의료기기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 규모를 보유하고 있음
- ‘정형외과·보철학 기기’, ‘치과용품’의 경우, 현 시장 규모는 작으나 가장 빠른 매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 성장 속도는 각 13.4%, 12.8%로, 같은 기간 베트남 의료기기 시장의 총매출 성장률(연평균 8.4%)을 크게 웃돌았음
- 최근 3년간(2014~2016년) 베트남의 의료기기 수입 규모는 연평균 8.1%의 속도로 성장했으며, 지난해 수입액은 전년 대비 4.7% 증가한 8억 6,263만 달러로 추산됨
- BMI는 베트남 의료기기 시장이 향후 5년간 연평균 10.2%의 속도로 성장해 2021년 15억 3,470만 달러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

<베트남 의료기기 시장전망>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CAGR
소모성 품목	164.1	181.5	200.2	221.3	243.9	10.4
영상진단기기	304.3	347.0	369.3	406.2	446.4	10.1
치과용품	40.0	42.8	48.6	55.3	62.8	11.9
정형외과,보철기기	95.7	106.0	117.8	131.1	145.4	11.0
환자보조기기	153.2	169.9	187.9	208.2	230.1	10.7
기타 의료기기	282.5	301.5	338.5	377.6	406.1	9.5
총계	1,039.8	1,148.7	1,262.3	1,399.7	1,534.7	10.2

자료원: BMI

< 인도 >

- 국 명 : 인디아 공화국(Republic of India)
- 면 적 : 약 3,287,263km² (한반도의 약 15배 / 세계 7위)
- 기 후 : 열대 몬순, 온대 기후, 고산 기후(북부) 등 다양
- 수 도 : 뉴델리 (New Delhi)
- 인 구 : 3,120만 명(2015년)
- 민 족 : 인도 아리안족(72%), 드라비다족(25%), 몽골족 및 기타(3%)
- 언 어 : 힌디어, 영어 외 21개의 공용어
- 환 율 : US\$ 1 = 65 Rupee (2018년 4월 기준)
- GDP : 2조 4,390억\$ 세계7위

○ 인도 전기전자 시장

- 인도의 주요 제조 산업군으로 자동차와 전기전자를 손꼽지만, 전기 전자 제품의 7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인도 정부에서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 중. 아직까지 총생산(GVA)에서 제조업 경쟁력이 취약한 점을 보아 장기간의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함
- 전기전자 산업의 주요 분야는 스마트폰 제조업으로 인도 내 스마트폰 출하량이 2016년에 1억대를 돌파하여 2017년에는 14.8% 이상 점유율이 증가함.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1년까지 인도 내 스마트폰 판매량이 2억 700만대의 판매성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
- 2015년 4G 서비스망이 확산되면서 기존 인도 휴대폰 시장의 삼성 전자 및 인도 토종 브랜드의 인기가 삼성전자와 중국산 스마트폰으로 양자 경쟁구도로 변화됨

<인도 스마트폰 업체별 판매량>

(단위: 백만대)

업체	2016년 4분기		2015년 4분기		연간 성장률
	출하량	시장 점유율	출하량	시장 점유율	
삼성전자	6.2	22%	7.0	25%	-11%
샤오미	3.0	11%	0.9	3%	232%
오포	2.6	9%	0.2	1%	1578%
레노버	2.6	9%	3.0	11%	-14%
비보	2.1	7%	0.3	1%	647%
기타	11.3	41%	15.6	59%	-25%
계	28.1	100%	27	100%	4%

자료원: 카널리스

○ 인도 통신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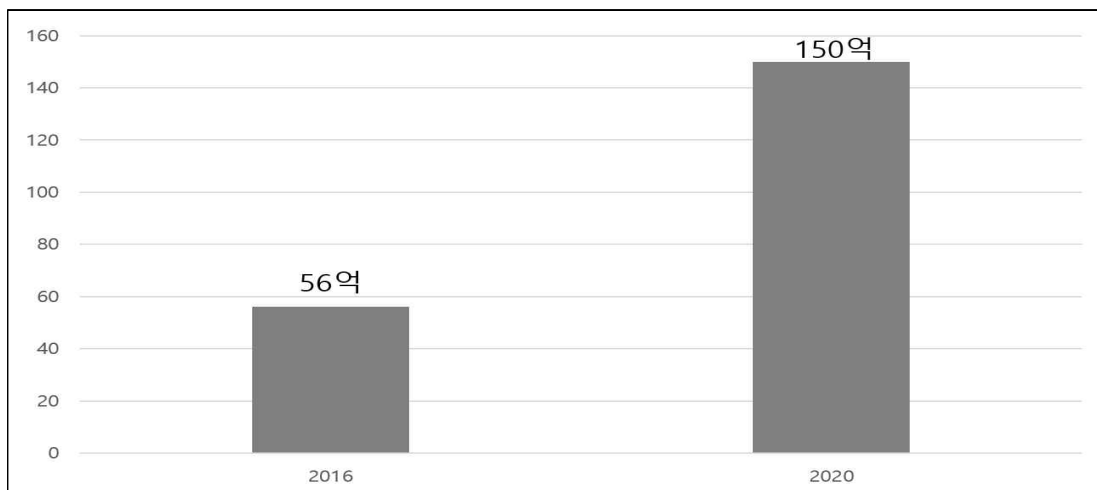
- 금년도 2월2일부터 시행된 2018-19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에 통신기기 완제품과 부품에 대한 기본 관세 인상 조치가 포함되어 있고, 모바일 완제품(HS8517.12)은 15%에서 20%로, 부품과 액세서리(3919.90.90과 8544.42등 다수)는 7.5%와 10%에서 15%로 기본관세가 인상됨. 이로 인해 수출이 대폭 감소함.
- 인도의 통신시장 제 1위 사업자인 ‘에어텔’의 4G의 활성화 이후 무선 데이터 기반의 전자상거래, SNS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 인도는 중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통신시장이며, 인도 정부에 따르면 2021년까지 스마트폰 이용자 수가 8억1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통신산업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스마트폰과 통신장비(광섬유, 시그널 케이블, 커넥터, 랜카드, 스위치 등)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할 것이며, 또 안드로이드와 IOS 기반 애플리케이션의 수요도 함께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보임

○ 인도 스마트홈/시티 시장

- 인도 정부는 도시화 정책에 힘을 실어 메가 시티를 조성함과 동시에, 스마트시티 조성에 집중하고자 함. 스마트시티 미션에 향후 5년간 5080억 루피(약9조815억 원) 투자 예정으로, 모디 정부 공약에 따라 모두 100개가 건설되는 스마트시티는 건설시장 규모로 볼 때 약 1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인도에서 이야기하는 스마트시티는 단순히 ICT기술 분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 설비를 갖춘 도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고속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서비스는 물론 식수, 전력, 주택, 폐기물 처리 및 태양 에너지원 공급과 같은 친환경 전력 발전을 10%까지 올리는 것을 주요 과제로 하고 있음
- 현재 각종 정보기술, 수처리, 폐기물 처리사업, 태양광 패널사업 등 본격적인 수주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발빠른 참여를 통해 진출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 하지만 인도 정부가 스마트시티 선정도시 20곳 중 9개 도시는 순수 인도기업에 컨소시엄을 맡기겠다는 입장도 표명하고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인도 IoT 시장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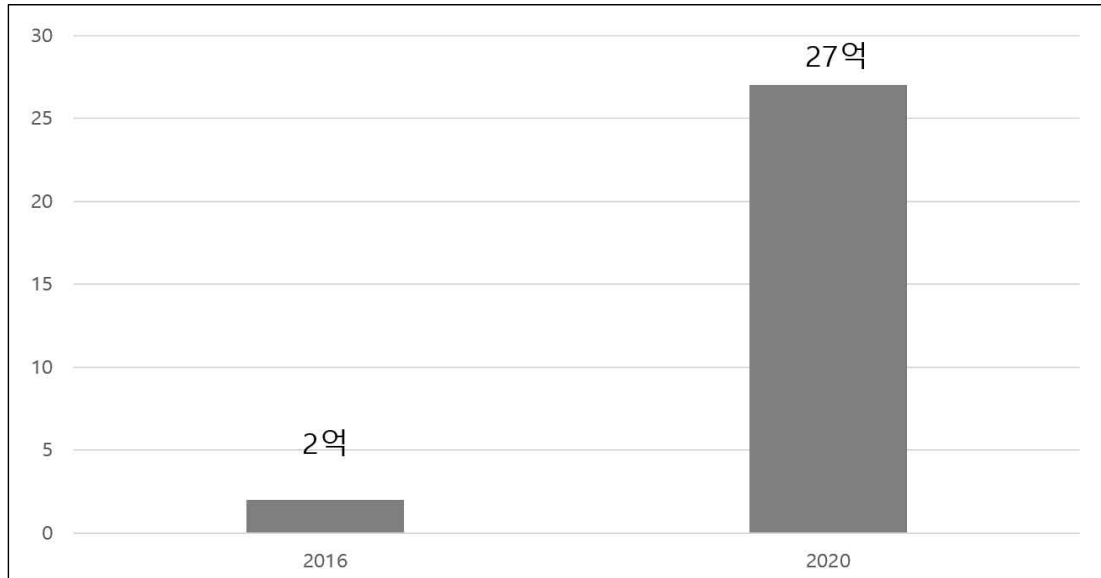
(단위: 억 달러)



자료원: NASSCOM, KITA Trade Brief

<인도 IoT 활용제품 수>

(단위: 억 개)



자료원: NASSCOM, KITA Trade Brief

○ 화재 및 보안 산업

- 인도 보안 산업은 급 성장세를 보이는 시장으로 2014년 61억 5000만 달러에서 2020년까지 123억 달러로 약 2배 정도의 점유율 확대 전망

<인도 전자 보안시장의 주요 기업>

기업명	회사 정보
Zicom India	- 설립연도: 1994년 - 대표자: Mr. Manohar Bidaye - 시장점유율: 35%
	- 프로필: Zicom사는 인도 내 전자보안시장의 선두기업으로 인도 내 전자보안 솔루션 최초로 론칭. 전 세계 5개국, 1023개 도시에서 보안서비스 제공 - 주요 제품: CCTV 시스템, 출입 통제시스템, 화재경보시스템, 비디오 도어 시스템, 침입경보 시스템, 지문인식 기기, 원격보안관리 시스템
Honeywell Automation India Ltd.	- 설립연도: 2005년 - 대표자: Mr. Anant Maheshwari - 시장점유율: 불명

	- 프로파일: 건물 복합관리 시스템 기업으로 건물에너지관리, CCTV, 원격보안관리 시스템 등 보안업무를 동시에 취급 - 주요 제품: 스마트그리드 시스템, 방문자 관리 시스템, CCTV시스템, 침입경보 시스템, 접근제어 기기
Tyco Fire & Security India Private Limited	- 설립연도: 2012년 - 대표자: Mr. Ramesh Jayaraman - 시장점유율: 불명
	- 프로파일: 인도 전역에 10곳의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350여 개 도시에서 보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 미얀마, 몰디브에서 보안 사업 진행중 - 주요 제품: 접근제어 시스템, 침입경보 시스템, CCTV
Bosch Security India	- 설립연도: 1953년 - 대표자: Mr. Soumitra Bhattacharya
	- 프로파일: 공항, 철도, 산업용 보안, 건물 복합관리 시스템 - 주요 제품: 비디오 감시시스템, 방문자관리 시스템, 접근제어 시스템, 침입경보 시스템, 화재경보시스템 - 홈페이지: in.boschsecurity.com

자료원: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인도 전자보안시장 성장추세>

(단위: 달러,
%)

구분	2013	2014	2015
전자보안시장	8억7700만	9억5300만	15억3000
성장률	-	9	60

자료원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특히 최근 급격한 도시화 및 다문화 사회에 따른 주요도시 범위를 증가로 인도정부 차원의 CCTV, 가로등 설치, 보안장비의 확대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에 영상감시장비 시장은 연평균 32%대의 성장세로 2016년 9억5000만 달러에서 2020년까지 24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통신망 확충 및 디지털화로 인한 인터넷 IP를 활용한 감시 장비가 늘어나고 있으며, 효율적으로 범죄관리를 위해 중앙감시체제가 가능한 디지털 장비를 활용한 감시방안을 선호하는 추세로 변화중임

○ 인도 전자결제 산업

- 전자상거래는 인도 유통시장에서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Digital Payment 2020에 따르면, 2015년~2016년도에 약 3억 9000만 건의 모바일뱅킹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선지급 결제가 7억4700만 건이나 발생됨
- 스마트폰의 보급 증가 및 전자지갑(mobile Wallets)의 빠른 도입으로 인해 인도의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3년 내 5000억 달러 이상으로, 지금보다 10배 가까이 성장하며 인도 GDP의 1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 전자상거래 도입과 값싼 노동력을 활용한 배달 시스템의 결합으로 소비자의 시장 접근성이 확대되고, 모바일 선물 충전, 모바일 청구서 결제, 공과금, E-Commerce, 여행 관련 예약 결제 등에 Digital Payments를 활용하는 추세임

<인도의 Top 3 모바일 결제>

회사명	설치율	특성
PayTM 페이티엠	40%	2014년에 전자지갑 서비스를 런칭하여 인도에서 급성장중임. 현재 1억2200만 명의 활성 이용자가 등록되어있고, 많은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Free Cash를 제공하며, 쿠폰과 캐쉬백으로 프로모션 전략 활용
FreeCharge 프리차지	30%	Snap Deal(스냅딜)소유의 결제 시스템으로 2015년에 런칭하고 매달 15%의 거래 성장률 보임. 자체 플랫폼에 2000만 명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보유
Mobikwik 모바퀴	20%	약 3000만 명의 전자지갑 사용자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5000만 달러의 펀딩을 받음. 지갑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해, 2G사용자를 겨냥한 전략을 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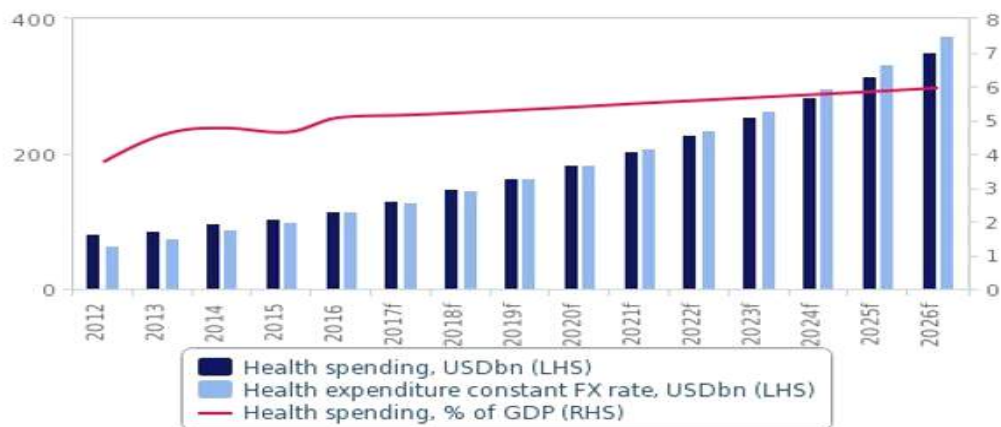
자료원: KOTRA 해외시장 보고서, KOCCA 시장진출 보고서

- 전자상거래는 신속하고 안전한 거래로 인지되면서 QR Code, iris, biometric System, Scanner 등의 신기술과 접목된 결제 방식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 다양한 전자결제 시스템 분야의 한국 기업들은 인도의 전자상거래 업체와 파트너십을 통한 시장 진출 전략 필요함

○ 인도 전자의료기기 산업

- 2017년 인도의 총 의료산업비는 1320억 달러로 전년대비 12.9%의 성장을 보이며, 연평균 22.9%의 고성장으로 2026년에는 3000억 달러 규모를 기대함. 전체 의료 산업의 65%이상이 헬스케어 분야로 주로 병원, 요양원, 진단센터, 제약회사 등이 분포 되어있음

<인도 의료산업시장 매출 규모 추이>



자료원: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 또한 빨라진 인도 인터넷에 따라 IT 인프라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인도 소비자들의 모바일 헬스케어 접근성이 용이해졌고, 모바일 헬스케어 대한 편의성으로 인해 인도 소비자와 공급자 간의 의견도 비슷한 양상을 보임

<모바일 헬스케어 이용자(소비자/공급자)별 이용사유 조사>

순 위	모바일헬스케어 이용사유(소비자)	순 위	모바일헬스케어 이용사유(공급자)
1	의료비용 절감 (58%)	1	고객 확보 및 치료비용 절감(42%)
2	공급자(병원 등) 접근 용이 (55%)	2	신규 고객 확보 (40%)
3	의료시설 정보 확보 (40%)	3	행정소모비용 감소(35%)

자료원: PwC,

- 인도 의료산업의 대부분은 미국, 한국, 독일, 중국 순으로 의료 기기를 수입하며, 특히 한국 의료기기의 인지도가 높으며 시장성이 큼. 의료기기 관련 바이어들은 첨단기술이 접목된 기기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길 선호함
- 2017년 의료기기 관련 법안이 도입되면서 과거에 비해 인도 의료기기 시장의 체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특히 수출지향적인 인도정부의 정책에도 보유기술력이 미흡한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용인하는 경향이 보이며, 이에 따라 완제품 및 신기술을 보유한 의료기기의 진출을 위해 부품이나 중간제품 조달이 어려운 현지시장의 틈새 공략이 필요함